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 공연들이 축소·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사진은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파사드(왼쪽)와 충주 극단 하디의 '여전히 열여섯'.



무관중에 거리두기 공연이지만...무대 열기는 뜨겁다

평화연극제, 28일~9월 2일 10명 한정 예약...단막극 경연 무관중 영상 생중계 28~29일 안성현 탄생 100주년 공연·나주읍성 프로젝트 '동점문' 유튜브 방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각종 공연이 축소,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원광연)는 제16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를 최소화해 진행한다. 이번 연극제는 당초 오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전일빌딩 245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개·폐막식과 주제 공연, 초청공연은 예술극장 통으로 자리를 옮겨 10명 한정 예약으로 진행하고, 단막극 경연은 무관중 영상 중계로 전환한다. 날짜는 동일하다.

이번 연극제는 '기억을 깨내 세상에 담다'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기념해 민주, 인권, 평화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무대를 선보인다.

단막극 경연과 주제공연, 초청 주제공연, 포럼, 역대 해외우수초청작 상영 등으로 구성됐으며, 개·폐막식은 28일 열린다. 이날 지난해 평화상을 수상한 극단 바람꽃이 무대에 올라 '부러진 날개로 날다'를 선보인다.

29~30일 광주연극협회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는 단막극 경연에는 전국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팀이 참여한다. 광주 대표로는 극단 시민과 예린, 마루아트컴퍼니가 참여하며 대구 극단 초이스시어터, 서울 극단 꿈의 동지, 에이치프로젝트, 충주 창작극단 하디 등이 무대에 오른다.

31일 열리는 초청 공연은 충북 극단 청년극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숙희책방'을 무대에 올리며 9월 2일 주제 공연에는 광주 극단 더가 '금복음다방'을 선보인다.

단막극제 시상식이 열리는 폐막식과 해외우수초청작 상영은 무기한 연기됐으며 10월 9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권과 예술 그리고 평화연극제' 포럼이 열린다.

나주읍성 4대문 프로젝트 두 번째 '동점문'과 안성현 탄생 100주년 기념 '안성현 그는 누구인가' 공연은 오는 28~29일 나주 동점문에서 열린다. 나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에 통해 만날 수 있다.

당초 나주 지역 학교 오케스트라와 밴드, 무지크바움 유스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출연이 취소됐다. 대신 재즈 쿼텟 무드리스트가 참여하며, 무지크바움 현악사중주단의 실내악 연주와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인 동점문 미디어파사드를 만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재즈 쿼텟 무드리스트와 무지크바움 현악사중주단이 우리에게 익숙한 합과 가요를 들려준다. 이와함께 모차르트와 안성현



소리꾼 윤세린

의 곡도 연주되며, GIST(광주과기원) 안창욱교수가 만든 AI작곡가 EvoM의 곡이 초연된다.

2부는 나주시립극단의 무대와 미디어파사드로 꾸며진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과 무지크바움 음악감독 김선철이 공동으로 작업한 작품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작품 상영 중에는 각종 시인의 '문열어라, 사해의 문'을 열라(28일), 나해철 시인의 안성현 선생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29일)가 낭송된다.

공연 '소리꾼이 들려주는 클래식'(29일 오후 3시 유스퀘어 문화관)도 좌석을 제한해 진행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20 지역문화예술특성지원사업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예.감.더.Q연구소가 주최·주관하며 코로나 19로 50석 한정해 열린다.

공연에서는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클래식과 국악을 결합해 선보인다. 소리꾼 윤세린과 고수 박상준이 무대에 오르면 피아니스트 송선마·하은진·이주영·김유미·이효은·김라하·이은누리·이현주 등이 연주를 들려준다. 일반 5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 무료.

/전재제 기자 ej6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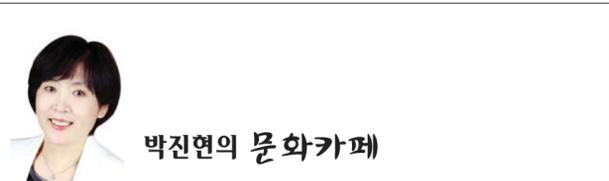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27일 '어린왕자' 북토크 온라인 생중계



'당신은 '어린왕자'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광주일보사는 (사)새말새물짓과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매일 첫 째날 함께 읽을 한 권의 책을 선정·발표한 후 북토크 지상 중계, 최진석 교수의 '독법'을 담은 기고문 등을 통해 책을 읽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7월에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함께 읽었고, 8월에는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를 선정했다.

프로젝트 중 최 교수와 '책 읽는 개그맨' 고명환씨가 함께하는 '북토크'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리는 행사다. 27일 열린 행사는 코로나 19로 현장 북토크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7시 부터 유튜브 채널 '최진석의 새말새물짓'(https://www.youtube.com/channel/UC4pjftfPdvusUueGbtzdYQ)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크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읽은 '어린왕자'와 관련, 흥미로운 북소리를 펼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2010년 12월 말, 광주일보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미 선진예술재단 연쇄 화상인터뷰'. 10년 전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다. 하지만 영하권의 날씨에도 인터뷰가 열린 광주아메리칸코너는 세계적인 문화CEO들과의 릴레이 대담으로 뜨거웠다. 그도 그럴것이 이날 온라인으로 연결된 이들은 워싱턴의 케네디센터, 뉴욕링컨예술센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예술센터 등 내로라 하는 리더였다. 주한미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은 오랜 세월 예술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운영철학을 상세하게 들려줬다. 이날 세계적인 문화수장들(ministry)가 없는 미국은 케네디센터나 링컨센터 등 민간예술재단들이 주도적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기치 않은 불황이 불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게 문화기관이다 보니 이들이 겪은 위기 관리 능력은 많은 예술재단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의 '초심'

과의 화상 대담은 이듬해 신년특별기획으로 지상 중계돼 독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일보가 전례를 찾기 힘든 '빅 이벤트'를 벌인 건 광주문화재단때부터였다. 2011년 1월 공식 출범하는 광주문화재단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선이들 선진 예술재단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시, 지역사회는 광주문화재단이 국립기관인 아시아 문화전당의 카운터파트너로 문화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수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이나 광주비엔날레재단 등 특정분야의 전문기관은 있었지만 지역의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는 광주문화재단이 처음이었다. 그런 점에서 선진 예술재단의 성공 사례는 출발을 앞둔 광주문화재단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와 달리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미니스트리)가 없는 미국은 케네디센터나 링컨센터 등 민간예술재단들이 주도적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기치 않은 불황이 불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게 문화기관이다 보니 이들이 겪은 위기 관리 능력은 많은 예술재단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오래전 취재 이야기를 꺼내든 건 올해로 광주문화재단이 1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평상시 같으면 대대적인 기념이벤트가 펼쳐졌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오히려 조용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 그 대신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는 9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대표이사의 후임 인선이 지역문화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정한 내정설과 그로 인한 시민단체들의 잇단 성명서, 재공모착수 등 매끄럽지 못한 광주시의 인사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그래서인지 10년 전 화상인터뷰에서 강조한 브랜드 이견 소장(케네디센터 디보소 인스티튜트)의 메시지가 유난히 생생하게 떠오른다.

"문화재단이 성공하려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재단의 목표(mission)를 충실히 실현해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왜 재단을 설립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재단의 성패는 주어진 미션을 충실히 달성했는지 아니냐에 달려 있다. 초심을 잃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광주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역량있는 인물이 선임돼야 하는 이유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국립국어원, '위드 코로나 시대' 대신 '코로나 일상'

국립국어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바이러스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아울러 산이나 전망대 등에 설치해 공중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구조물 '스카이워크' 대체어로는 '하늘 산책로'가 결정됐다. 또한 고정된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현상인 '멀티 커리어리즘'의 대체어로는 '겸업 현상'이 선정됐다.

국어원은 최근 열린 새말모임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같이 정했다. 새말모임은 국어 전문가를 비롯해 외국어, 교육, 홍보·출판, 언론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산 행사부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